

# “만해스님 불교관 정밀분석 필요”

◇ 제2회 만해축전 '불교개혁 심포지엄' 모습. 윤원철 교수(서울대)가 '한국불교의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수안 모크

## 백담사 만해축전 '불교 개혁사상과...' 학술회의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이 근대 불교사 및 불교사상에 미친 영향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불교학계의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병삼(숙명여대) 교수는 10일 '불교의 개혁사상과 만해의 개혁정신'을 주제로 강원도 백담사에서 열린 불교개혁심포지엄에 논평자로 참석해, "1920년대에 등장한 용성 스님의 '개혁론'과 이영재 선생의 '조선불교혁신론' 등은 모두 만해 대표적 스님임을 간주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는 '추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만해 스님은 6백여 편의 연구 논문 수가 말해주듯, 원효 스님(7백여 편)에 이어 인문학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연구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 스님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정교수의 이 같은 지적은, 이들 연구들이 대부분 시문학 중심으로 이뤄졌고 있을 뿐, 정작 근대 불교사 및 불교사상에서의 스님의 위치를 정확히 짚어주지 못하고 있는 연구의 불균형을 지적한 것이다.

또 만해 스님이 '조선불교유신론'에서 한국불교 발전을 막는 사찰령을 비판하지 않고, 일본 통감부에 '대처금지해제' 건의한 것을 비판하고 있는 사회자들에게, 불교학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정교수의 문제 제기를 한 점이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의 '만해 연구논저 총목록'을 보면, 만해 스님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시문학계에 의해서 70년대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연구 주제는 불교유신·독립사상 등과 같은 스님의 사상 부분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문학적인 접근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만해' 연구자들은 '만해 스님의 사상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님의 불교관 자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1910년 한국불교계의 유신론'을 발표한 김상현(동국대) 교수도 "현재 불교계가 당연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전이나 고대사 연구로는 한계가 있으며 근·현대사를 통해 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일제침탈, 3·1운동, 불교유신, 대적간 분쟁, 법란 등 일련의

## “문학 중심 연구서 사상까지 넓혀야”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른 한국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현대불교사의 중심에서 있는 만해 스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만해 스님의 주요 활동기인 1910~1930년대는 일제의 문화말살 정책과 서양문물의 무분별한 유입에 따른 불교의 쇠퇴기였다. 만해 스님은 이 같은 침체의 원인을 하늘이나 운명이나 하는 말로 설명하는데 반대



하고, 불교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구습들을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삼 교수는 "불교 유신의 책임을 스스로 떠맡고 나섰던 만해 스님은 동시대 불교계의 피상적인 개혁이나 개량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다며 "유신은 파괴로부터" 혹은 '파괴는 유신의 어머니'라는 그의 강렬한 주장 뒤에는 근대 불교계에 대한

반성과 모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만해 스님에 대한 불교적 연구가 더욱 깊이 있게 진행될 때, "짧은 종기를 도려내고 상처를 치료할 때 새 살이 돌아날 수 있다"는 스님의 시대 정신이 올바르게 전달되고, 오늘날 불교중흥의 방향 설정에 적잖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opia.com)

## 태국 붓다다사 스님 추모사이트

태국의 사회개혁운동을 이끈 붓다다사(1926~1993) 스님을 추모하고 사상을 조명한 사이트가 '수안 모크' (Suan Mokk·자유의 꽃)이다. 붓다다사 스님은 불교를 태국의 현대적 상황에 알맞게 적용하는 데 선구자적 역할을 하며, 사회의 부도덕성과 이기주의에 대해 직설적인 비판을 제기했던 고승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스님의 강연, 저작, 기고문, 시, 비디오 등 30여 개의 자료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스님의 사상이 담긴 '담마적 사회주의' (Dhammic Socialism)이다.

다시 말해 스님은 서구 정부나 사업가 및 선교사들에 의해 이식된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는 그 의미가 매우 애매모호하고 기만적이라고 생각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유는 얼마든지 이기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님은 그 예로 점증하고 있는 빈곤, 범죄, 군비증가, 환경파괴, 자살, 마약 남용 등 우리 시대의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들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는 이기적이고, 비윤리적이고, 폭력의 원인이고, 평화의 결말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스님은 '담마적 사회주의'를 주장한 것이다. 여기에서 사회주의란 공공이익이 우선되고 개인보다 사회가 더 근본적인 것이며, 전체로서의 사회에 대한 관심과 필요가 개인적인 것보다 우선되는 관점을 뜻한다.

따라서 이 글을 읽는 불자들이라면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의 이념이 감각과 물질만을 좇는 이기적 욕망의 자유와 동의어는 아닌지 진지하게 자문해 보는 계기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이 사이트에서는 '불교와 환경보존운동' '진실한 불자의 길' '담마의 서약'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술 속의 맑은 영혼' '불교와 민주주의' 등 수편의 붓다다사 스님의 제자들의 글도 제공된다.

이 중에서 '진실한 불자의 길'은 태국의 유명한 수행승인 마하야케 스님이 영국 사드하타사 국제불교센터와의 인터뷰를 게재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스님은 현대의 불자들이 실천해야 할 것으로 꼽은 20가지 실천 목록은 지금까지도 유럽 불자들의 생활 지침이 되고 있다고 한다.

실천 목록에는 △가난할 때 자비를 베푸는 것 △높은 지위에 있을 때 수행하는 것 △경전을 읽을 것 △욕망과 욕정에 종속되지 말 것 △사물에 대한 분별심을 억제할 것 △물질적인 유혹을 견디어 낼 것 △폭넓게 공부하고 모든 사물을 철저히 분석할 것 등이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opia.com)

△http://www.suanmkkh.org/



## 괴산 보안사 삼층석탑 보물 지정

문화재청은 1일 충북 괴산군 보안사 삼층석탑을 국가지정 문화재인 보물 제1299호로 지정했다. 이 석탑은 단층 기단 위에 3층 탑신부 및 노반으로 구성된 화강암 탑으로 2, 3층 탑신이 1층에 비해 눈에 띄게 작고, 탑신석과 육개석이 각각 하나의 돌로 돼 있는 게 특징이다. 특히 고려시대 석탑으로는 드물게 감실이 1층 탑신에 조성돼 있는데 이런 예는 국보 제48호 일직사 팔각구층석탑과 보물 제327호 경북 의성 빙산사지 오층석탑 등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opia.com)

## 동국대 불교관련 박사논문 11편 '통과'

### 석사논문 12편도

동국대대학원 2000학년도 불교 관련 박사·석사 학위논문은 총 23편(박사 11편, 석사 12편)으로, 박사 학위논문 중에서 유식과 수행을 조명한 논문이 많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박사 학위논문은 △무착의 유식학설 연구(수산스님) △성유식론에서의 식(識)과 경(境)의 관계연구(한자경) △상탑에 대한 유식학적 접근(강종구) 등 유식 관련

논문과 △설일체유부와 유가행과의 수행론 비교연구(김명희) △유가유식의 수행체계 연구(최기표) 등 수행 관련 논문을 비롯해 △대승기신론의 연구 - 증생즉불관을 중심으로(현성스님) △고려불화의 화엄사상성 연구(김영재) △몽산학이 선사상 연구(김형복) △불교가사의 유훈 연구(김종진) △조선전기 불화의 지방유과 연구(장희정) △조선시대의 호불(護佛)론에 관한 연구(김기영) 등 총 11편이다.

젊은 학자들이 유식과 수행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불교는 '마음의 종교' '실천의 종교'라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불교 관련 석사 학위논문은 △중종의 견해에 대한 비판 연구(김경희) △삼국시대 마애불 연구-중국 산둥 지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박용준) △태고 보우시(詩) 연구(최수연) △청주 용화사 석불상군의 연구 △통일신라 9세기 불화에 대한 연구 등 12편이다.

오종욱 기자

## 새 중앙박물관 홍보 홈페이지

국립중앙박물관관립추진기획단(단장 김준영)은 2003년 완공을 목표로 서울 용산가곡공원 내에 신축중인 새 국립중앙박물관의 건립홍보 홈페이지(new-museum.go.kr)를 개설하고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홈페이지는 새 국립중앙박물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미리보는 새박물관'을 비롯해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함께 만드는 박물관', '박물관 이야기' 등 다양한 코너로 꾸며져 있다. 특히 '박물관 이야기'는 역사퍼즐게임, 백일장, 전통문화배우기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 이용자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3차원 가상 이미지를 통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건립현장과 홍보자료관을 관람할 수 있게 하였으며, 새 국립중앙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각종 보고서와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 학술단신

### '한국밀교의 서구적 이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는 18일 오후 4시 동국관 1301호에서 '한국밀교의 서구적 이해'를 주제로 풀 반데브룩크(켄트대학·벨기에) 교수의 강연회를 마련한다. 이번 강연회에서 브룩크 교수는 한국 밀교에 대한 서구 학자들의 이해를 밝히고, 한국과 서구간 밀교 관련 연구 성과에 대한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02)2260-8507

### 고암미술연구 논문 공모

고암미술연구소(소장 장중식)는 고암 이용노의 작품 세계에 대한 연구

논문을 공모한다. 석사 과정 이상의 학력 소유자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이번 모집은 원고지 100매 내외 분량으로, 11월 15일 마감이다. 당선 논문 발표는 12월중이며, 대상 1편에는 300만원, 우수작 3편에는 각 100만원이 수여된다. (02)3217-5676

### 디지털 대장경 ARS후원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는 디지털 대장경 제작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ARS 후원 모금을 실시한다. 12월 6일 고려대장경 CD-ROM 완성을 앞두고 있는 연구소는 내년부터 정부예산이 중단될 예정으로 있어 불자들의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ARS 후원 모금 전화번호는 (02)700-0870이며, 한 통화 당 5천원씩 제작 기금으로 전달된다.

## 수행의 길잡이

「만불명호경」과 함께 하는 三千拜  
3천 분의 부처님께 禮敬을 드리는 일입니다.

『만불명호경』과 함께 하는 삼천배는 바로 3천 분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일입니다.

『만불명호경』은菩提流支 번역의『佛說佛名經』을 비롯한 총 9冊 56卷의佛說佛名經에서 부처님의 명호를 일일이 대조 정리하여 신행생활에 유용하도록 새롭게 엮은 佛典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무심으로 올리는 삼천배가 자신의 修行을 위한 것이라면, 부처님의 名號를 독송하며 올리는 삼천배는 願力成就의 원동력입니다.

1 만 분의 부처님 명호를 통해 수행과 원력의 성취를 체험하십시오.

자녀분의 대입기도, 집안 가문의 사업 발전 ..... 그 소중한 원력들을 지닌 기도를 이제는 『만불명호경』과 함께 하십시오

편 집 : 도서출판 佛泉  
감 수 : 월운스님(동국역경원장)  
역은이 : 초격 스님  
보급처 : 광명성원  
☎ 02) 584-1108  
016-217-0143

가 격 : 35,000원

※ 보급처를 통한 전화나 우편주문만으로 판매됩니다

## 신인간이 드러나고 있다!!!

www.goldenflower.co.kr

신인간을 위한 멀티미디어 쇼핑몰



### 사이트 오픈 기념 특전

- ① 신비감이 감도는 '신성무(神性舞)' 영상 음악 테잎(5,000원) 무료 증정.
- ② 무료로 인도 '오소 명상 휴양지(12월 13일)'를 다녀올 수 있는 추첨 기회 부여.
  - 대상 - 투어 경비 전액 지원(140만원 상당)
  - 1등 - 투어 경비 50% 지원(70만원 상당)외 경품 다수
  - 추첨일 10월 16일 · 투어일정: 12월 6일(수) - 12월 18일(월)
- ③ 투어 참가자, 투어비용 10만원 할인

행사 기간: 10월 15일까지

·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전화 주문: 02)711-4227,8 / 팩스 02)711-4229 황금꽃

